

북한매체 보도 동향

1. 농업정책

농업정책

- 과학농사를 실시하자 (로동신문 2.4)
 - 강원도에서 과학농사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있음.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.
 - 농업전선을 경공업부문과 함께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운 당의 의도에 따라 당의 농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있어 기본은 농사의 과학화임.
 - 강원도 창도군 읍협동농장에서는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해 경지면적에 후민산소다를 받아들임. 우선 토지를 개량하여 땅의 지력을 높일수 있었으며 농작물의 뿌리발육에도 좋았으며, 원료 걱정도 없었음.
 - 또한 지난해부터 흙보산비료를 비롯하여 유기농법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도당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.
-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자(로동신문 2.29)
 - 봄철영농이 다가옴에 따라 농업부문 일꾼, 근로자들은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. 물은 농업의 생명수임. 농작물에 물을 넉넉히 보장하는 것은 정보당 알곡소출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구임.
 - 일꾼들은 현지에 내려가 시, 군, 농장별 물잡이 형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물량을 빠르게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. 모든 농장에서는 저수지, 보조수원에 물을 채워넣기 위한 사업을 완수해야 함.
 - 새로운 물원천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 하며, 저수지에 물을 빨리 채워넣어야 함. 각지 관개관리소 일꾼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양수설비의 수리정비를 빨리 끝내야 함.
 - 확보한 물을 낭비없이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. 저수지수문과 제방, 물길 보수를 튼튼히 해야 하며, 물확보와 공급을 계획적으로 할수 있도록 급수체계를 바로 세워야 함.

2. 벼농사

농사차비

- 농사차비에 힘을 기울여 (로동신문 2.9)
 - 은과군 류정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.
 - 농장에서는 농사차비의 선후차를 옹계 정하고 노동력을 조직하여 짧은 기간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한편 모든 작업반, 분조에서 그날 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.
 - 제8작업반원들이 모판자재를 비롯한 영농자재확보에서 앞서나가고 있으며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. 제2작업반의 분조들과 농장원세대에서는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 있음.
 - 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소식회를 생산하고 있음.

3. 밭농사

씨뿌리기

- 봄밀, 보리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(로동신문 2.25)
 - 봄밀, 보리 씨뿌리기가 시작됨. 씨뿌리기는 적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함. 봄밀, 보리는 자라는 기간이 짧으며 낮은 온도에서도 싹이 트고 자람. 그러므로 씨뿌리는 시기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면 수확고를 높일 수 있음.
 - 봄밀, 보리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해야 함. 논앞그루로 봄밀, 보리를 심는 농장에서는 밭작물의 특성에 맞게 두둑을 지어주고 물도랑도 깊이 만들어 냉해와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.
 - 단벌농사에 비하여 두벌농사에서는 지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. 특히 봄밀, 보리는 자라는 기간이 짧으므로 밑비료를 충분히 주어 초기부터 영양상태를 좋게 해주어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음.
 - 봄밀, 보리는 아지치는 기간이 짧으므로 평당 씨뿌림양을 가을밀, 보리보다 늘려야 하며 씨앗묻는 깊이를 정확히 지켜야 함.

4. 축 산

축산동향

- 집약화가 실현된 축산토대 (로동신문 2.25)
 - 현대적인 돼지공장에서 과학적인 육종체계를 세우고 사양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축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. 사리원 돼지공장에서는 사양관리조건에 맞고 새끼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종자를 육종함.
 - 또한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산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육성률은 물론 마리당 고기생산량을 종전보다 1.2배 이상 높임.

- 현대적인 가금기지에서 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고기, 알생산을 높임. 신의주 닭 공장에서는 자체로 우량품종의 닭을 육종하였으며, 927닭공장에서는 먹이조절에 의한 비육닭기르기 방법을 완성하여 고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.

5. 농업기반

토지정리, 간석지, 국토관리 사업

- 3만여 정보의 냉습지 개량 (로동신문 2.7)
 - 농업성 자료에 의하면 새해농사차비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만여 정보의 냉습지가 개량됨.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2.7배나 높은 실적임.
 - 황해남도 일꾼들은 지난해 기상기후조건과 농사실태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올해에 1만 3천여 정보의 냉습지를 개량할 목표를 세움.
 - 안악군 안의 농장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땅속 물도랑을 만들 곳은 만들고 차단물도랑을 팔데는 파면서 냉습지개량 사업을 힘있게 추진함. 그리하여 천수백 정보의 냉습지를 개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.
 - 함경남도에서도 냉습지 개량에 힘을 넣어 성과를 올리고 있음. 리원군과 신포시에서는 올해 냉습지개량계획을 이미 수행하였으며 함주군과 함흥시에서도 냉습지개량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. 올해에도 도적으로 3천여 정보의 냉습지를 개량함.
 - 남포시에서는 올해 계획한 냉습지 개량을 이미 기본적으로 끝냈으며 함경북도, 강원도 안의 농촌에서도 냉습지개량실적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더욱 높이었음.

6. 산림

나무모 생산

-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할 목표 (로동신문 2.12)
 - 국토환경보호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양묘장에서 올해에 지난해보다 수억그루의 나무모를 더 생산할 목표 하에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.
 - 중앙양묘장의 양묘직장, 품종보존구직장, 시험재배직장에서는 니탄과 톱밥을 적극 찾아 실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 채종구직장, 온실직장의 일꾼, 종업원들도 벼겨를 제때에 실어들이야 질 좋은 영양단지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운반수단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.
 - 리원군, 정평군, 함주군, 신흥군, 고원군산림경영소를 비롯한 함경남도 안의 산림경영소 양묘장에서 나무모생산준비를 다그치고 있음.
 - 평안북도 시, 군산림경영소에서도 나무모 온실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7. 기타 작물

□ 과수

- 가지자르기를 기술적으로 (로동신문 2.5)
 - 온천과수농장에서는 올해 과일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방도의 하나를 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는데서 찾았음.
 - 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정보당 과일생산을 늘릴 목표를 세운 일꾼들은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과일나무비배관리에서 중요한 공정인 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. 올해 농장에서는 새로운 가지자르기 방법을 도입하였음.
 - 제3작업반 근로자들 모두가 과일나무 가지자르기에서 지켜야 할 과학기술적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날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. 제4작업반 근로자들도 과일의 품종별 특성에 맞게 가지휘여주기와 가지숙음을 기술적요구대로 하고 있음.
- 식물성농약생산을 늘린다 (로동신문 2.5)
 - 올해 함경북도 과수연합회사 초평과수농장에서 지난해보다 식물성농약 생산실적을 더 올렸음. 그 비결은 능률 높은 건류로를 새로 만들어 이용한데 있음.
 - 새로 제작되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이 건류로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3개의 밀폐탱크가 있음. 원료는 마른 강냉이속, 쭉 등임. 마른 강냉이속은 그대로 사용하며, 쭉은 10-15cm의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함.
 - 새 건류로는 우선 원료를 적게 쓰면서도 더 많은 식물성농약을 생산할 수 있음. 종전의 건류로와 대비해볼 때 시간당 생산량이 3배나 됨. 또한 식물성 농약의 질이 높아졌음. 더욱이 과일나무의 성장촉진에 매우 효과적임.
 - 각지 과수농장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원료원천을 적극 찾아내어 효능 높은 식물성농약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과일생산을 늘리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임.
- 늘어나는 현대적인 청춘과원 (로동신문 2.25)
 -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에만 대동강 과수종합농장과 같은 청춘과원이 곳곳에 세워짐으로써 키낮은사과나무밭 면적이 수천 정보 증가함.
 - 함경남도에서는 룡전과수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과수농장에서 토지를 정리하고 키낮은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.
 - 평안북도에서는 송한과수농장을 본보기단위로 꾸려놓고 그 경험을 다른 과수농장에 일반화하고 있음. 평양시, 황해북도, 황해남도에서도 이미 있던 과수원을 현대화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음.
- 과일나무 비배관리에서 혁신 (로동신문 2.29)
 - 각지 과수농장에서 과일나무비배관리에 힘을 넣고 있음. 연초부터의 노력으로 1/4분

기 거름생산 계획이 앞당겨 완수되었으며 과일나무 가지자르기 실적은 계획의 50%를 넘어섰음.

- 온천과수농장을 비롯한 과수농장에서는 과수밭의 지력을 높이는 것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.
- 평양시와 평안남도 내 과수농장에서는 가지자르기를 과일나무의 생태학적 특성과 영양상태에 맞게 잘하고 있음.

□ 남새

- 태양열 온실에서 많은 남새를 (로동신문 2.12)
 - 강계시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이 태양열 온실을 이용하여 많은 남새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.
 -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의 태양열온실에서 많은 남새를 생산하여 광명성절과 태양절에 주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할 목표를 세움.
 -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모든 협동농장에서 수백㎡의 태양열 온실을 새로 더 건설한 조건에 맞게 온실에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있음.
 - 또한 책임감이 높은 농장원을 온실관리공으로 배치하고 그들이 온도보장, 물주기, 덧비료주기 등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음.

8 기타 보도 동향

□ 비료, 거름

- 유기질비료생산에서 혁신 (로동신문 2.25)
 - 농업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거름생산은 1.1배, 흙보산비료 생산은 1.4배,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은 1.3배로 높아짐.
 - 평양시, 평안북도, 함경남북도, 남포시, 강원도, 자강도, 량강도에서는 거름생산이 끝났으며 평안남도, 황해남북도에서는 마감단계에 진입함.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만 톤의 질 좋은 거름이 생산됨.
 - 흙보산비료 생산에서도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남. 함경북도에서는 이미 생산이 끝났으며, 평안북도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3.5배나 되는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였음.
 - 유기질복합비료 원료확보와 생산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. 황해북도에서는 사리원 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을 비롯한 모든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의 생산설비를 보수정비하고 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.
- 많은 흙보산비료를 (로동신문 2.27)
 - 신천군 우룡협동농장 제9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이들은 흙보산비료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양과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나가고 있음.

- 알곡증수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가 흙보산비료생산을 늘리는데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농장원들은 기온이 올라가는데 맞게 야외에도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를 꾸렸음. 이들은 온습도보장대책을 잘 세워 흙보산비료의 질을 높이고 있음.
- 농장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흙보산비료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.

□ 살림집

- 살림집 내부미장 90% 돌파 (로동신문 2.12)
 - 건설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살림집 건물의 내부미장실적은 90%를 넘어서고 공공건물과 봉사시설을 포함한 20여 동의 건물에 대한 내부건축설비와 각종 건구설치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고 있음.
 - 일부 시공단위에서는 이미 살림집 내부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맡은 봉사시설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.
 - 당조직의 지도 밑에 건설지휘부와 시공단위 일꾼들은 만수대지구건설에 대한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공사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실시하고 있음. 수도건설총국 아래 여러 단위에서도 모든 힘을 쏟고 있음.